

‘고전’번역이론의 살아 숨 쉬는 가치를 찾아서: 환경의 변화에도 통번역교육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남 원 준
(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오늘날과 같이 테크놀로지 발달이 번역학계의 화두(박지영 2017; 송연석 2018; 이상빈 2018; 이향 2018; Gambier 2016; Katan 2016)가 될 만큼 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지나치게 예전의 것이며, 따라서 현재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고전적’이라고까지 치부할 수 있는 번역이론의 살아 숨 쉬는 가치에 관해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소고로 이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고전’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워낙 주목을 받는 요즈음에,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부족한 본고를 세심하게 살펴봐주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그리는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의 아날로그적 심상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했다. 다시 말해, 키케로나 슐라이마허 등이 설파한 말 그대로의 ‘고전적’ 번역이론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발달에 관한 담론에 의해 잠시 가리워진 번역 교실에서의 번역이론의 위상과 역할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전’ 번역이론이라고 부른다.

바라건대 본고가 번역학습에 효과가 클 수 있는 번역이론의 가치에 관해 함께 숙고해보는 과정이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변화와 그 함의에 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담론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번역교육에 있어 이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음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말미에서는 팀티칭의 일환으로 필자와 원어민 교수가 피드백을 제공한 학생들의 한영번역의 예시들을 소개한다.

2. 통번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2.1 환경변화에 관하여

혹자는 아주 먼 과거에는 흔히들 자신이 학창시절에 배운 방식 그대로 학생들을 교육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간 통번역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신지선 2013),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점진적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판단한다(남원준 2014). 여기에 과거의 교육방법을 고수할 수가 없는 데에는 무엇보다 통번역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탄(Katan 2014: 11-13)은 번역계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몇 가지 요소로 기계번역, (비전문 번역가들의) 크라우드소싱, 창의적인 비전문 번역가(creative non-translator translators)를 꼽았다.

통번역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우리가 특히나 인지

1) 예컨대,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번역을 수행하거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번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Katan 2014: 13).

하는 데에는 최근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우려 또는 대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우리나라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들이 모두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박지영 2017: 138). 또한 CAT(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또는 기계번역의 성장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고 있다. 번역학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에 대한 높은 관심(최수연 2017; 김순미 2016b)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개발 초기부터 번역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쩌면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이노신 외 2016: 66). 다양한 기관 또는 기업들이 기계번역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정확도 역시 적어도 서양언어들 간에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점차 많은 데이터가 구축될수록 정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67). 이에 따라, 국내 기계번역의 개발(최승권, 김영길 2016; 이노신 외 2016)에서부터 네이버 파파고 등 국내 기계번역과 국외 기계번역의 품질을 비교하는 연구(장애리 2017)까지 학계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CAT와 기계번역은 ‘용어사용의 일관성과 속도’(박지영 2017: 143)가 최대의 장점인 것은 분명하다²⁾. 이에 따라, CAT툴은 일상업무, 학업 등에 점차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141), 기계번역으로 번역되는 텍스트타입, 문체, 매체가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143).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또는 인간과 기계가 새로운 형태로 협업하고 있다(이상빈 2016)³⁾.

2) 물론, 기계번역의 품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인지 기계번역의 오역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며, 기계번역이 오역을 범할 때마다 어쩌면 반가워하기도 한다.

출처: “Facebook’s translation software got a man wrongly arrested”

(<https://www.fastcompany.com/40484938/facebooks-translation-software-got-a-man-wrongly-arrested>)

출처: “WeChat Apologizes for Translating ‘Black Foreigner’ as N-Word”

(<http://www.sixthtone.com/news/1000991/wechat-apologizes-for-translating-black-foreigner-as-n-word#tss-twitter>)

3)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앞으로는 기계가 통번역을 전담할 것이라고 야단스럽게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이를 보고 우리 학계에서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쩌면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통역’과 ‘번역’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서로가 기대하는 통번역의 수준과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적어도 인간만

우리가 우려하는 바의 핵심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와 직결된다. 즉, 전문통번역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다. 예컨대, 반드시 전문통번역가가 아니어도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Pym 2013: 489-91; 박지영 2017: 147에서 재인용)? 또는, 앞으로는 통번역료, 통번역품질기준이 모두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148)? 이런 류의 우려이다.

최근의 환경변화 때문이라도 전문통번역가의 위상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통번역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 관한 것이며, 우리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와 직결된다. 문화는 결국 인간이 향유하며, 인간의 몫이다⁴⁾. 기계가 누리는 문화란 없다.

박지영(2017: 156)이 잘 제시한 것처럼, 통번역시장은 점차 세분화되어 일반인들이 기계번역 등의 도움을 받아 번역에 보다 쉽게 참여하면서 이른바 통번역의 사각지대를 해소(장애리 2017: 201)하기도 하겠지만, 감성과 맥락, 창의성이 요구되는 번역일수록(201) 인간이 주도할 것이다. 즉,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은 오히려 전문번역가의 전문화, 세분화로 이어질 것이다(이노신 외 2016: 77). 아무리 LSP(Language service provider) 등이 수확체증 효과를 노리고 CAT 등을 점차 많이 활용한다고 해도(박지영 2017: 157), 번역이 보편화되면서 번역의 큰 파이가 오히려 성장하면 아무리 번역료가 하락한다고 해도 보상효과를 누릴 수 있다(158). 이를 뒷받침하듯이, LSP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최수연 2017: 209), 비록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통번역사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은 일반에서 갖는 통번역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큼은 명확하다.

통번역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이끄는 그 다음의 요소로는, 카탄(2014,

이 통번역을 할 수 있을 때에 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번역(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번역앱)의 등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통번역을 의뢰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4) 출처: Google’s Pixel Buds will find cultural complexities a challenge

<https://venturebeat.com/2017/10/08/googles-pixel-buds-will-find-cultural-complexities-a-challenge/>

5) 출처: Where the jobs are: Translators. CNBC’s Kate Rogers takes a look at the demand for translation services in the U.S. in almost every field.

<https://www.cnbc.com/video/2017/07/07/where-the-jobs-are-translators.html>

11-13)이 번역계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은 (비전문 번역가들의) 크라우드소싱, 창의적인 비전문 번역가(creative non-translator translators)의 증가와 관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달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쉽게 협업도 하고 통번역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김순미 2016a: 7).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사회 변화와 인터넷·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번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비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7)했으며, 게임번역, 네티즌 번역, 참여적 뉴스번역, 팬 웹툰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7). 이들의 번역동기를 보면, 자신의 관심분야 내용 공유에서부터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20).

그러나 비전문 번역활동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Gambier 2016; Gambier & Munday 2014). 통번역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고, 보편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통번역가 또는 통번역 전공자들은 비전문 통번역가들과 때로는 협업으로 때로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활동할 공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통번역’은 넓은 영역이다.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매우 제한된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학부 통번역교육의 입장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능력이 뛰어나 번역을 수행하는 이들과 통번역을 전공한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피하는 것이 관건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통번역교육의 전문성⁶⁾을 강화하자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상빈 2016).

카탄(2014, 11-13)이 번역계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은 세 가지 이외에도, 우리의 맥락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이후,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와 같은 외국인 번역가를 ‘3세대 번역가’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⁷⁾. 즉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번역가들이 1세대이고, 이러한

6) 역지의 비유를 들자면, 사회인 야구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프로야구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프로와 아마추어가 크게 다르듯-전문 통번역가와 통번역 전공생들이 프로답게 전문성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7) “한국문학에 빠져 번역 나선 외국인들...‘3세대 번역가 등장’”

한국인 번역가들과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번역가들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2세대이며, 단독으로 외국인이 한국 작품을 번역하는 3세대까지 왔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 그림을 놓고 보았을 때, 억지다. 그리고 번역에 대해 보도를 할 때 번역학계 또는 번역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지 오래다. 너무나 쉽게 단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문학번역원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번역아카데미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하고 있는 모습에서, 왠지 미래 한국인 번역가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⁸⁾

2.2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하여

이러한 환경변화가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에 관해 우리 학계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물론, 테크놀로지를 거부하자는 주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비현실적이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관련하여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러다이트(Ludite) 운동을 부흥시키면서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통번역사의 직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크게 바뀌어왔다. 예컨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번역가가 직접 번역을 타이핑하기보다는 번역은 구술로 진행하여 녹음한 후에 이를 듣고 타이피스트가 타이핑했다(Chesterman and Wager 2002: 109). 이후 워드프로세서의 등장으로 그 이전에

연합뉴스 2016년 5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1/0200000000AKR20160521045800005.HTML>

8)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하지 말자. 한국에 관해, 한국어에 관해, 한국 문화에 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어로부터 자신의 모국어로의 번역까지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특히, 이렇게 구축되고 점차 견고해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층은, 결국, 이후 누가 번역을 하든 간에 우리가 겨냥하게 되는 첫 번째 목표독자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한국어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해도, 그 수가 누군가가 바라는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아직 멀고도 멀었다.

는 하지 않았던 문서의 타이핑은 물론 편집까지도 번역사의 당연한 직무가 되었다(109). 보다 최근의 경우, 유럽의 번역사들에게 SDL Trados 등의 CAT 툴이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 이처럼 통번역사의 직무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진화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통번역가가 테크놀로지를 ‘포고’, 통번역가가 갖춰야할 여러 가지 능력 중의 하나로 보는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강세다. 테크놀로지가 통번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가가 갖춰야할 당연한 기본 자질 중 하나가 테크놀로지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통역의 경우, 원격통역(remote interpreting)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미국 통역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된 InterpretAmerica(www.interpretamerica.com)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배리 올슨(Barry Olsen 2017)에 따르면,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언어간 소통방식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바뀌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하나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널리 보급된 엔드포인트(endpoint)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이중/다중언어 전화회의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국제회의를 반드시 컨퍼런스룸 등의 국제회의실에서 면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때, 통역도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가 아닌 원격에서 통역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격통역이다.

올슨(Olsen 2017)은 원격통역이 점차 발달하면서 기존 통역을 ‘대체’하기도 하고, 통역의 영역을 ‘확대’하기도 할 것이라 예상한다. ‘대체’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미국의 의료, 법정 통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한 의사가 모국어가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 예전에는 환자의 언어별 통역사를 따로 고용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통역서비스제공업체와 계약하면 해당 외국어별 통역사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태블릿 PC를 장착한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의사와 외국인 환자 간의 대화를 화상을 통해 통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의료 통역에서도 모든 유형의 통역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에서만 원격통역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통역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격통역은 당연한 선택이다. 결국, 제반비용을 감축하면서도 통역을 최대한 많은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동시에, 원격통역은 기존 통역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이중/다중언어 회의방식, 예컨대, 온라인 화상회의, 웨비나, 가상공간 기자회견 등은 처음부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획되며, 따라서 통역사 또한 원격통역으로 통역하는 것이 당연하다. Olsen(2017)은 이러한 유형의 원격통역에 있어 통역사의 1일 통역량, 보수, 음향/화상의 품질, 통역사의 스트레스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원격통역 관련 테크놀로지 개발의 초기부터 통역사들이 적극 개입하여 업계의 관련 표준이 통역사에게 알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예전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 또는 의뢰인들에게 이제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가 얻을 것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요컨대,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지금까지 미치지 못하던 곳까지 원격통역을 통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이를 통해 전체 통역의 영역이 커지면, 하나의 보상효과(박지영 2017: 158)를 누릴 수 있다. 보다 넓어진 통역의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상이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⁹⁾

번역의 경우, 기계번역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면서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번역계가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크게 체험한 CAT에 관한 논의가 80년대 중반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CAT이 가져다줄 이점보다는 전문번역가들이 잃을 것에만 함몰되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모습과 사뭇 흡사한 면이 있다(Olsen 2017). 이제 CAT툴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은 적어도 서구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 지 오래가 되었다.

기계번역에 대한 국내학계의 논의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언론의 호들갑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가 이제는 점차 호흡을 가다듬고 이에 대응하여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해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¹⁰⁾

9) 이와 관련하여 올슨(Olsen 2015)은 통역 콘솔 제작자 Bill Wood의 말을 빌어 “통역사가 테크놀로지에 의해 대체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통역사들에 의해서는 대체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10)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알파고와 이세돌 등의 바둑 대결에 큰 관심을 보인 아시

특히, 번역가가 테크놀로지를 ‘품고’ 가야한다는 입장에서는 “번역학계[가] 기계번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기계번역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신지선, 김은미 2017: 105)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 기계번역, 기계번역 결과물의 포스트에디팅(MTPE: 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등 번역과 테크놀로지 관련 주제에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¹¹⁾.

특히, MTPE의 능력 배양을 ‘번역교육’에 녹여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예컨대, 학부번역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연구인 이상빈(2018: 139)에서는 국내 학부번역과정에서 MTPE를 교육과정에 도입해야하며 교정교열과 전문용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텍스트타입별 MTPE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는 마승혜(2018)에서는 향후 MTPE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학부 번역교육에서 MTPE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MTPE가 번역의 전체를 지배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들은 아니다. 다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번역의 과정에도 테크놀로지가 점차 투영될 것이기 때문에 “번역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것은 번역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향 2018: 617)으로 보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기계번역, MTPE 등을 배우고 기계번역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616).

통번역가가 테크놀로지를 ‘품고’ 통번역가가 갖춰야할 여러 가지 능력 중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테크놀로지가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능력을 규명한 후 이를 보다 강화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테크놀로지가 수행할 수 없는 인간번역(HT: Human Translation)만의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잘 녹여내는 것이 최근에 화두가 된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이다¹²⁾. 트랜스크리에이션은 “이미 존재하는 원천 텍스트를 충실

하게 재생산하는 것과 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사이의 어떤 중간단계¹³⁾”(Katan 2014: 58)로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하다(translate)’와 ‘창조하다(create)’가 합쳐진 말이다. 클라우드소싱을 통한 비전문가들의 번역, 기계번역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는데도 많은 전문번역가들은 여전히 ‘문화적 전환 이전의 시대(pre-cultural turn)’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Katan(2014: 14)이 전문번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하나이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보면, “나는 번역가일 뿐이다. 어떤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내 직무 밖이다.”라는 등 자신의 업무영역 또는 역량을 발휘할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인다(Katan 2016: 377). 이에 대해 Katan(2016)은 매우 단호하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크리에이션 전환을 해야 한다”(377)고 단언한다. 요컨대, 기계번역 등 테크놀로지에 비교했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창조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번역 그 이상(more than translation)’의 개념으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트랜스크리에이션은 학계보다는 업계에서 더 각광을 받아왔다. 특히, 서구에서는 기존의 번역 에이전시와의 차별화를 꾀한 신규 에이전시들이 자신들은 “번역뿐만 아니라 창조성을 제공”(Bernal Merino 2006: 32; Pedersen 2014: 63에서 재인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를 특히나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트랜스크리에이션에서는 번역을 하나의 ‘기계적인 행위(a mechanical view of translation)’(Gambier 2016: 888)로 치부하고 그저 “형태적 단어 대 단어 전이를 구현하는 노동행위”(888) 정도로 격하시킨다고 비판한다. 즉, 트랜스크리에이션의 밑바탕에는 번역에 대한 ‘나쁜 평판(bad reputation)’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번역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야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Luo 2018).

11)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문번역 학술지인 *The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2013년과 2015년에 번역과 테크놀로지 관련 특별호를 발행하기도 했다.

12) 학술지 *Cultus: the intercultural journal of mediation and communication*에서는 2014년에 트랜스크리에이션 관련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을 대주제로 연구한 박사학위논문도 발표되었다(선영화 2019).

13)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선행연구의 직접인용은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록 최근에 와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이 크게 관심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용어와 개념은 1676년에 라이프니츠(Lebniz)가 처음 제시하였고(Katan 2016: 375), 보다 최근에는 랄 푸리셔(Purushottama Lal)이 1964년에 사용하였으며(Munday 2016: 287), 비에이라(Vieira)는 데 캄포스(de Campos)의 피테 작품 포르투갈어 번역에 관해 1994년에 논하면서 사용하였다(Katan 2016: 375).

게다가 “트랜스크리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많은 용어와 개념은 로컬리제이션과 번역에 관한 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Munday 2013: 280; Pedersen 2014: 64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감비어(Gambier 2016: 888)는 번역이 “로컬리제이션, 번안, 버저닝(versioning), 트랜스에디팅, 언어중개, 그리고 트랜스크리에이션 등의 용어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개탄한다. 먼데이(Munday)는 이렇게 다른 용어에 어떤 부가적 가치를 자꾸 붙여넣게 되면, 결국, ‘번역’이 갖고 있던 본래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경고한다(Gambier & Munday 2014: 22). 이들 새로운 용어들이 담아낸다고 하는 모든 가치와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본디 ‘번역’이 모두 포괄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이 ‘번역 그 이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Pedersen 2014: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제안하는 바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라 큰 가치가 있다. 용어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트랜스크리에이션에 관한 논의는 번역에서의 창조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보다 전통적인 시각에 관해 재고하도록 한다(Schäffner 2012: 881; Pedersen 2014: 69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트랜스크리에이션 전환을 주장한 카탄(Katan 2016) 역시 번역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지나치게 협의에 머물고 있다보니,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통해서라도 전문번역가들의 창조성을 돋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3.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고전’번역이론의 살아 숨 쉬는 가치

3.1 통번역교육의 본질

지금까지 살펴본 환경의 변화는 번역교육에 어떤 함의가 있을까? 원격통역, MTPE,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등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변화 모두가 통번역전공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줄 모르는 번역사들은 취업을 할 수 없거나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 번역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것은 번역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향 2018: 617)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법, 이를 활용해 통번역을 수행하는 방법 등도 당연히 학습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통번역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internalize)(강경이 2011: 7)한다는 것이다. 이때 내면화의 본질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며 언제나 그랬던 통번역의 기본 작용원리, 즉 통번역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스스로 그 통번역을 수행할 수 없고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을 때만 통번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배움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번역의 메커니즘을 내면화해야 한다.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통번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번역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원격통역을 활용해 통역을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대신 통역을 하거나 대체되는 것이 아니며, MTPE를 통해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면서 전체 텍스트를 조망하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번역문만을 보고 윤문하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크리에이션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원문의 번역문이 보다 목표독자층에게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원문도 없이 새롭게 창작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통번역 전공생들은 예전과 동일하게 원천-목표 텍스트를 토대로 그 안팎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통번역을 수행하는 통번역능력을 함양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원적 의미의 통번역과 그 확장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테크놀로지 발달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소들을 통번역교육에서는 적극 수용해야겠지만, 통번역교육의 본질은 언제나 학생들의 통번역능력 함양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번역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는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 등이 모두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러한 실무 기반 역량을 지탱하는 큰 틀이 되고 나아가 전문 번역사가 되어서도 그들의 활동을 지탱해줄 큰 틀은 ‘고전적’이라고까지 치부할 수 있는 번역이론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Sakamoto 2017¹⁴).

3.2 통번역교육의 본질에 있어 ‘고전’번역이론의 가치

통번역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려는 노력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원종화 2013; 신지선 2016; Lederer 2007; Sung 2016). 그중에서도 이론과 실무를 가장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이다(Chesterman & Wagner 2002: 9-11). 이는 통번역 실무가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고(9-11), 통번역 전공생들도 학습 초기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며, “어떠한 번역이론이 어느 정도 교육되어야 할지 교육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이상빈 2015: 36-37)면 가장 먼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들 개념적 도구들이 번역학습에 활용되는 예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전적’이라고까지 치부할 수 있는 번역이론의 살아 숨 쉬는 가치에 관해 함께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서 ‘고전’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워낙 주목을 받는 요즘에, 인간이 번역

- 14) 사카모토(Sakamoto 2017)는 영국, 아일랜드 번역 선생님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의 번역수업에서 어떤 번역이론을 함께 공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영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일-영 번역가 17명을 인터뷰하여 이들이 자신의 번역 선택(translation choices)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념을 원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전문 번역가들이 현업에서 원용하는 여러 개념들과, 번역수업에서의 번역 관련 담론을 비교·분석했다.
- 15) 지금부터 살펴볼 예시들은 학부 통번역 전공생들이 2학년 ‘번역이론 및 실제’ 수업 시간에 부과한 한영번역과제 중 일부이며 총 31명의 전공생들이 수행했고 원천 텍스트는 대출광고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번역과제는 팀티칭의 일환으로 필자와 원어민 교수(한국외대 EICC학과 Michael Chesnut 교수)가 별도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그리는 개념적 도구의 아날로그적 심상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했다. 또한, 그간 학계 논의가 지나치게 환경변화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택한 용어이기도 하다.

우선, 번역실무에 있어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원천 텍스트의 구조를 그대로 목표 텍스트에 담아내는 일대일 치환을 수행하여 “원천언어로부터 목표언어로의 언어 오염”(Gile 2009: 116)을 볼 수 있는 번역문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래도 학습자로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특히 ‘원천 텍스트를 배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Gile 2009: 121)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를 살펴보자.

ST: 경제생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¹⁶

학생1의 TT: It can paralyze their economic activity.

위와 같이 학생이 번역을 제출하게 되면, 교수자는 학생의 TT가 보여주는 표층구조의 틀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컨대, 위 번역에 대한 원어민 교수자의 피드백¹⁷)은 이랬다.

‘Paralyze economic activity’ may not fit with this type of problem, it’s typically used for a larger economic crisis, and it usually is not used to refer to one ‘class’ of people.

학생은 위 피드백을 통해 어떤 영어 표현에 대해 배울 수는 있겠지만, 해당 학생의 번역 수준에서 꼭 필요한 피드백은 따로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이 원천 텍스트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지 않으면서도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본인의 영어 능력으로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단어와 표현으로 구성해본다면, 그리고 그 때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해당 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드백일 것이다.

16) 번역의 원천 텍스트 출처는 광중철(2012)임을 밝힌다.

17) 팀티칭을 진행하면서 함께 학생들의 번역을 검토한 한국외대 EICC학과 Michael Chesnut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개념적 도구는 기호성(iconicity)이다. 기호성은 기본적으로 ‘쪼개기(chunking)’의 개념으로 “정보/의미/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쪼개는 것을 말한다¹⁸⁾”(Chesterman & Wagner 2002: 10).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ST: 우리나라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우리 조상들과 참전용사자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우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학생2의 TT: The Korean government's not enough support to war veterans is definitely not helpful to promote/encourage/foster patriotism.

위의 예시에서도 학생의 TT에 대해 표층구조의 틀 안에서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적 도구인 기호성을 활용해 번역을 수행한 후에 제공하는 피드백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기호성을 통한 1차 번역: Korea has developed its economy very fast. It has been able to enjoy rapid development. Korea's ancestors and war veterans made great sacrifices. Their sacrifices laid the groundwork for Korea's rapid development.

기호성을 통한 2차 번역: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supporting war veterans enough. When we think of the nation's economic growth, veterans have played a great role.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학생의 번역에 대해 교수자가 주는 피드백이 해당 학생의 수준에서 꼭 받아야 할 피드백이고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지는 예시는 너무나 ‘고전적’이어서 더 이상 그에 관해 언급조차 할 수 없는 ‘탈언어화(deverbalization)’에 관한다.

ST: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광고
학생3의 TT: TV ads that touch our minds

18) 위 번역은 정연일, 남원준(2009)의 것임을 밝힌다.

학생4의 TT: Advertisements that attract our mind

앞서 기술한 것처럼, 위와 같은 번역에 관해서는 표층구조의 틀 안에서만 교수자-학생 간의 ‘소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위 번역에 대한 원어민 교수자의 피드백은 아래와 같았다.

- The collocation ‘touch’ and ‘mind’ seems somewhat odd, ‘heart’ might be more common but even that may be too romantic for this text
- ‘Attract’ is used, for instance, when we say, ‘attract our interest’

‘탈언어화’란 “원천 텍스트의 표층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의도된 의미에 도달한 후, 그것을 목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Chesterman & Wagner 2002: 9)이다. 이를 활용하면 저맥락(low-context) 언어인 영어에서는 ‘광고’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이야기/스토리’일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게 되어 ‘advertisements that tell heartwarming stories’ 등의 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래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T: 대출의 심각성

학생5의 TT: Seriousness of loans

ST: 경계심이 무뎠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6의 TT: People may become less vigilant.

ST: 대출광고의 양이나 표현방법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학생7의 TT: Therefore, there must be regulations on the amount of or expressions used in loan ads.

위의 예시들은 ‘화용론적 등가(pragmatic equivalence)’ 중에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함축성(implicature)’에 관한다(Baker 2011: 230-273). ‘함축성’이 번역에서 난제로 작용할 때는 “화자가 발화하는 문자나 말 이외에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 또는 암시하는 바”(235)가 있을

때이다. 위 예시에서 등장하는 ‘대출의 심각성’은 결국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계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가 클 수 있는지에 관해 의식을 덜 하게 된다’, ‘대출광고의 양이나 표현방법’은 ‘대출광고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축한다. 이렇게 함축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해보는 과정, 즉 텍스트 안에 함축적으로 있는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는 ‘명시화(explicitation)’(Chesterman & Wagner 2002: 11) 과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위 예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화’를 진행할 수 있다.

- realize the consequences of borrowing money
- people might lower their guard against the dangers of borrowing money
- appropriate regulations on how much they can advertise and how they advertise are needed

요컨대 위와 같이 개념적 도구를 활용한 번역을 학생들이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의 번역에 대해 교수자-학생 간의 소통이 이뤄진다면 표층구조의 틀 안에서 소통할 때보다 해당 학생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 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4. 나가는 말

최근 학계의 논의를 보면, 통번역의 영역이 고정된 것으로 많이들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만이 누리던 전유물을 이리저리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반가를 리가 없다. 통번역의 영역을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는 제한된 공간,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어버리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필자도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보자.

기계번역의 품질이 점차 향상되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번역을 의뢰할 생각도 못했던 이들이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예: 식당 메뉴, 관광안내, 일반문서 등에 대한 기계번역). 통번역의 기존 영역에 없던 수

요이지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쉽게 통번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창의적인 비전문 번역가(creative non-translator translators)(Katan 2014: 13) 등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별 주제지식 전문가들이 이전보다 쉽게 통번역을 수행하겠지만(Katan 2016: 373-75), 그만큼 전문 통번역가와 통번역 전공생들이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면 된다.

전문 통번역가들은 때로는 테크놀로지를 ‘폼어’ 이전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통번역을 수행하면, 통번역을 의뢰하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수요가 늘어 통번역의 큰 파이가 성장할 것이다. 이른바, 보상효과를 누릴 수 있다(박지영 2017: 158). 또한, 전문 통번역가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인문학 장르 등에서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돋보이는 통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송연석 2018: 136).

이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더 커진 통번역의 영역에서 모든 유형의 통번역가들이 서로 공존하며 활동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으로 통번역의 기존 영역에는 없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기계번역을 포함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MTPE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모두 ‘폼어’ 가기는 하지만 질적 차이를 비롯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통번역사들은 때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 통번역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통번역을 수행하는 모습이 된다. 통번역의 영역 확장이다.

통번역교육은 테크놀로지의 발달 등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번역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통번역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internalize)(강경이 2011: 7)해야 한다. 특히, 언제나 그랬던 통번역의 기본 작용원리, 즉 통번역의 기본 메커니즘을 내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통번역 역량을 지탱하는 큰 틀이 되고 나아가 전문 통번역사가 되어서도 그들의 활동을 지탱해줄 큰 틀은 ‘고전’번역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 중에서 본고에서는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에 관해 살펴보았다.

개념적 도구를 포함한 ‘고전’번역이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번역 전공생들의 졸업 후 진로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특히, 학부의 경

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통번역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수렴하는 곳은 전공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진로의 토대가 되는 지점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부에서 영어통번역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경우, 1) 통번역 전문대학원, 번역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통번역 또는 인접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2) 금융, 무역 등 기업체에 취업을 많이 한다.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바로 통번역과 외국어능력이다. 테크놀로지 발달 등으로 통번역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고 해서 (아날로그적 의미로서의) 통번역 능력 향상이라는 통번역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어학습 등 외국어 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서 외국어능력 향상이라는 통번역교육의 핵심 중 하나와 거리를 두거나 이를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¹⁹⁾.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은 과거보다 뛰어난 기본 영어능력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갖춰야 할 전문성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 영어통번역 전공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이상빈(2013: 98)에서 ‘영어능력 향상’을 전공선택 동기로 손꼽은 비중은 52.9%이었다. 따라서 통번역능력, 외국어능력 향상, 특히 외국어로의 통번역능력 향상은 여러 가지 나아가야 할 방향들 중에서도 여전히 본질에 해당한다.²⁰⁾

여기에 ‘고전’번역이론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있다.

19) 이는 심지어 그간 ‘번역’에 무관심했던, 또는 나아가 교육현장에서의 번역을 금기시했던 외국어 교육에서도 이제는 ‘번역’에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Cook 2010). 또한, 오랫동안 서로 소통하지 않았던 통번역교육과 외국어교육을 다시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역학 내에서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Carreres 2014; Laviosa 2014; Pym 2018).

20) 조기 유학, 학원 교육 등 빈부격차가 영어격차(English divide)로 이어지는 것을 일부라도 줄이거나,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사회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통번역능력, 영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학부 통번역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참고문헌

- 강경이 (2011)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12(4): 7-32.
- 곽중철 (2012) 『곽중철의 통역강의록: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순미 (2016a)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들의 참여 번역 현상: 그 의미와 번역계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 『번역학연구』 17(3): 7-32.
- 김순미 (2016b) 「번역가의 ‘전문성’ 개념 변화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1-29.
- 남원준 (2014) 「AI Gore의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통역하기: 학생 통역 저널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5-28.
-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박지영 (2017) 「언어기술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20대 글로벌 LSP의 통번역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37-168.
- 선영화 (2019) 『트랜스크리에이션 연구: 이론·실무·교육 차원의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4.
- 신지선 (2013) 「번역교육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방향 고찰」, 정호정 (편저) 『통번역학 연구현황과 향후전망I』, 서울: 한국문화사, 383-436.
- 신지선 (2016) 「번역교육에서 ‘독자반응이론’의 효용성 고찰」, 『번역학연구』 17(5): 153-172.
- 신지선, 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09.
- 원중화 (2013) 「번역 수업과 번역 이론의 연계를 위한 실행연구: 통번역대학원 번역입문 수업을 대상으로」, 『통번역학연구』 17(3): 291-314.
- 이노신, 이진재, 이재영, 이주희 (2016)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융합통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7(2): 65-89.

-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4(4): 91-113.
- 이상빈 (2015) 「국내학부 영어 통번역 교육훈련의 문제와 해결방향: 한국외대, 동국대, 경희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21-44.
- 이상빈 (2016)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129-152.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향 (2018) 「번역테크놀로지, 번역, 번역교육」, 『인문사회 21』 9(1): 607-619.
- 장애리 (2017)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한·중 언어 쌍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171-206.
- 정연일, 남원준 (윽김) (2009) 『번역사와 번역학: 소통의 시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Andrew Chesterman and Emma Wagner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A Dialogue Between the Ivory Tower and the Wordface*, Manchester: St. Jerome.)
- 최승권, 김영길 (2016) 「다국어 자동통번역을 위한 공통 변환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 번역 방법」, 『통번역학연구』 20(3): 121-136.
- 최수연 (2017)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시대의 영상번역」, 『번역학연구』 18(2): 207-228.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rnal Merino, Miguel (2006) ‘On the Translation of Video Games’, *The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 7: 22-36.
- Carreres, Ángeles (2014) ‘Translation as a Means and as an End: Reassessing the Divid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1): 123-135.
- Chesterman, Andrew and Emma Wagner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A Dialogue Between the Ivory Tower and the Wordface*, Manchester: St. Jerome.
- Gambier, Yves (2016) ‘Rapid and Radical Changes in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887-906.
- Gambier, Yves and Jeremy Munday (2014) ‘A Conversation Between Yves Gambier and Jeremy Munday about Transcreation a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Cultus: The Intercultural Journal of Mediation and Communication* 7: 20-36.
- Gile, Daniel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ised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Katan, David (2014) ‘Uncertainty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s: Time to Transcreate?’, *Cultus: The Intercultural Journal of Mediation and Communication* 7: 10-19.
- Katan, David (2016) ‘Translation at the Cross-roads: Time for the Transcreational Tur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4(3): 365-381.
- Laviosa, Sara (2014) *Translation and Language Education: Pedagogic Approaches Explor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ederer, Marianne (2007) ‘Can Theory Help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ers and Traine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 15-35.
- Luo, Xuanmin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isis of Translation’,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5(1): 1-2.
- Munday, Jeremy (2013)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thi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unday, Jeremy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fourth edition,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 Pedersen, Daniel (2014) ‘Exploring the Concept of Transcreation: Transcreation as ‘More than Translation’?’, *Cultus: The Intercultural Journal of Mediation and Communication* 7: 57-71.
- Pym, Anthony (2013)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58(3): 487-503.
- Pym, Anthony (2018) ‘Where Translation Studies Lost the Plot: Relations with Language Teaching’, *Translation and Translanguaging in Multilingual Contexts* 4(2): 203-222.

- Sakamoto, Akiko (2017) ‘Professional Translators’ Theorising Patterns in Comparison with Classroom Discourse on Translation: The Case of Japanese/English Translators in the UK’,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62(2): 271-288.
- Schäffner, Christina (2012) ‘Rethinking Transediting’,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57(4): 866-883.
- Sung, Seung-eun (2016)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Undergraduate Classrooms: A Case Study’, 『통역과 번역』 18(2): 25-45.

<인터넷 자료>

- Olsen, Barry (2015) ‘Technology and Interpreting: Three Questions on Every Interpreter’s Mind’, 14 April. Available at <https://www.lourdesderioja.com/2015/04/14/technology-and-interpreting-three-questions-on-every-interpreters-mind/>.
- Olsen, Barry (2017) ‘Remote Interpreting: Feeling Our Way into the Future’, The ATA Chronicle. Available at <http://www.atanet.org/chronicle-online/featured/remote-interpreting%E2%80%A8-feeling-our-way-into-the-future/#sthash.pnIBoaD9.dpbs>.

[Abstract]

**In Pursuit of the Everlasting Value of ‘Classical’ Translation Theory:
The Essential Elements of T&I Education that Outliv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World of T&I**

Nam, Won J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s presented as part of an effort to rediscover the value of translation theory.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wor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I), which is especially propelled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many argue for swift adaptation of T&I-related technology and some even voice concerns over the future of T&I.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se recent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drawing on the literature in translation studie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on remote interpreting, machine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and transcreation are reviewed. Despite these recent developments as well as the call for introducing these T&I-related technology to the T&I curricul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very essence of T&I educ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In other words, although students should learn how to incorporate T&I-related technological tools in their daily T&I activities, they have and will always have to internalize the very mechanism of the act of T&I. And for this, translation theory provides a sturdy framework based on which students can further improve their T&I competence. Several student translations and ensuing corrective feedback are illustrated to demonstrate the role of conceptual tools as examples of how translation theory can serve this pedagogical purpose.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is construed as an effort to rediscover and underscore the value of translation theory that may otherwise be shelved in our minds because it’s considered to be simply ‘classical’.

- ▶ Key Words: recent developments in T&I, translator education, expertise in T&I, conceptual tools, translation theory
- ▶ 주제어: 통번역을 둘러싼 환경 변화, 통번역교육, 통번역 전문성, 개념적 도구, 번역이론

남원준

한국의국어대학교 EICC학과 교수

wjnam@hufs.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번역이론과 실제의 접목, 커뮤니티 통번역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28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8일